

지역 소식통

성덕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제고 위해 집중 홍보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은 서명만으로 인감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제고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홍보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인감등록이나 변경 시 성덕면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서명하면 발급이 가능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감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성덕면은 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담당별로 안내직원을 지정하고 공문 발송 시 제출서류 포기나 방문 민원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와 행사 시 피부부와 닿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습관적으로 인감을 발급받던 주민들은 인감을 비교해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민원24'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고 한시적이지만 수수료도 절감된다는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2017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이 7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500여 명의 읍면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표 어르신 선언문 낭독, 심폐소생술 시범, 주요 사업 설명, 뜻깊은 방 피해예방 홍보, 교통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올해 총 23억 7782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개 사업 1055명 규모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펼친다.

발대식에 참석한 어르신 500여 명은 오는 11월까지 읍면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에 참여해 월 22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어르신들도 부안군에서 민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청북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에서 노노케어, 경로당 관리원, 사랑이 담긴 도시락 배달, 나눔이 있는 채움 밥상 등에 참여해 지혜와 경륜을 발휘하게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 하수관리 정비 도중 베인 '46년된 홍목련 나무' 놓고 트러블 발생

Y모 주민 "주인 동의없이 베었다" 하소연

시공업체 "옆집 어르신이 베어달라 했다"

하수관 거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업체가 주민동의도 없이 46년 된 홍목련 분재나무를 베어버려 소유자가 관계당국에 억울함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안군은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처리구역 내 효율적인 오수차집으로 주민의 보건 위생 향상 및 방류 수역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상서면 가오리 일대 17km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총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Y모씨에 따르면 앞마당에 심어진 46년 된 분재 홍목련 나무를 주민동의도 없이 베어버렸다. Y씨는 애지중지한 분재감으로 키워온 46년 된 홍목련을 베어버리는 마구잡이로 공사를 강행하여 관계당국

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범 당국에 진정하고 나섰다.

특히 Y씨는 감독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감독관의 무능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에 시공업체 관계자는 "옆집 어르신이 베어달라"고 해서 홍목련 나무를 베었다"며 나무 주인에게 똑같은 나무를 심어달라면서 심어주겠다 답변하자 "그렇게는 안되겠다"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리단 관계자는 옆집 어르신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어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다고며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작업자가 베어 버렸다고며 원만한 해결이 되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내년 3월 7일까지... 별도 가입 절차없이 자동 가입

정읍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7월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보험 기간은 이달 8일 00시부터 2018년 3월 7일 24시까지 1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 장애는 최고 500만원까지, 자전거 상해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시 최고 30만원의 위로금과 7일 이상 입원 시는 1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

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천만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천만원까지, 뺑소니나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는 1천38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자전거 상해 위로금의 경우 4주 이상 진단 시 일괄적으로 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4주에서 8주까지 세분화하여 전년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02.475-8115, FAX 0505-181-5624)에 제출하면 된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정비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자전거 보험 가입과 더불어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 지원(300만원), 공공 자전거 운영 활성화, 자전거 도로 시설 정비(5천만원) 사업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정읍시 농기계 임대 사업소, 6월까지 근무시간 연장

정읍시 농기계 임대 사업소(이하 임대 사업소)가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영농 활동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근무시간을 연장한다.

임대 사업소는 "농번기철이 다가옴에 따라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돕고 농기계 임대 활성화를 위해 이달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운영시간을 앞당기고 토요일도 근무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당초 8시 20분에 시작했으나 50분 빠른 7시 30분에 시작하

고, 특히 토요일에는 농가에서 임차한 농기계를 반납(반납기간이 토요일인 경우)반납 할 때 까지 근무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 농기계는 24시간을 기준으로 임대됨으로 이른 아침에 농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용 전 날 오후에 출고한 후 계획된 시간에 이용하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관 관리가 기계의 내구연한 연장에 중요한 만큼 사용 후에

는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고 청소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 등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예약 전화번호는 본소는 539-6285~6번, 북부사업소는 ☎539-6292~3번이고, 시군간 협력사업으로 고창군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남권사업소는 ☎539-6294번이나 536-9600번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정읍시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133종 1,080대이며, 기종별 가격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면 최대 2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김제시 실버빨래방 세탁기 증정식

세탁·건조·배달 서비스까지 원스톱 제공

김제시(시장 권한대행 이승복)와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최병철)는 읍·면에서 운영하는 실버빨래방에 2,000만원 상당의 세탁기 12대를 추가 지원하는 실버빨래방 세탁기 증정식을 관할지역 시의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실버빨래방 운영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공덕면 복지회관에서 가졌다.

김제시 주민복지과(과장 남궁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빨래방 사업은 2008년 공덕면에서 최초 시행 이후, 2009년 김제시가 보건복지부 복지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을 6개소에 지원하여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어려운 이불빨래와 겹옷 등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복지이·통장, 노인일자리참여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수거하여 세탁, 건조, 배달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은

물론, 주민이 주민을 돕는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13개 읍·면에 24대의 세탁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맞춤형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월이 흐른 탓에 세탁기가 노후 되어 고장이 잦는 등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에 김제시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의 2017년 공모사업에 "실버빨래방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금년에 본 사업이 선정되어, 그간의 고민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만경읍, 죽산면, 백산면, 용지면, 백구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금구면, 황산면, 금산면에 모두 설치될 예정이며, 본 사업의 출발지인 공덕면에서 증정식을 갖게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실시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일 만경읍 소동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8일까지 총 7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농촌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의존도가 증가하고 고장난 농기계를 먼거리까지 이동하여 수리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김제시에 사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 분무기, 기타 모든 농기계

에 대한 정비 점검과 수리 등 농기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수리교육에는 순회수리 차량과 수리기사 등 3명의 수리반을 구성해 농민들이 농기계 고장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사용전·후 점검, 보관관리 요령, 안전 사용 요령, 자체 정비 및 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당면영농농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 재난위험시설 현장점검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월 6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범국가적으로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양원 전북도 자치행정국장도 참석하여 김제시 재난위험시설인 김제육교의 구조적 위험요

소를 살펴보고 현황을 청취하였다. 이승복 시장권한대행은 김제육교 현장을 점검하면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재가설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smaller images of different wine bottles and gift se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specifications.